

# 조선 전시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 형상화의 의미

김춘선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 1. 들어가는 말

조선의 현대문학작품에서 6.25를 제재로 한 작품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만큼 6.25 전쟁문학에 대해 개개의 작가나 작품에 대한 조명과 거시적인 개괄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북의 전쟁문학에 나타난 여성인물형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연구는 아직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된다.

6.25는 이미 지나간 역사로 되었지만 6.25 전쟁의 흔적은 아직 남아있어 문학의 소재로서 이러저러하게 문학작품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6.25 전쟁문학의 효시가 되는 전시소설이 여성들의 전쟁체험을 어떻게 소설화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북의 전시문학의 의미를 해명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후 북의 전쟁문학에서 여성들의 6.25 체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비교 고찰함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작업이다. 그것은 북의 전시소설은 이후 북의 6.25 전쟁소설을 이해하는 원형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전쟁이라는 비상시기에 북에서 나타난 여성형상은 어떤 특징을 보여주며 그것이 당시 문예정책과는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해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한국 6.25 전쟁소설과의 비교 연구를 위해서도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북의 전시소설중 여성형상을 주인공으로 다룬 전쟁소설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 2. 애국적인 삶의 지향과 그 의미

북의 전시소설에서는 전시 후방을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뿐만 아니라 치열한 전투현장을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도 여성형상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광복이후 국가차원에서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권장한 북에서 전시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임순득의 〈조옥희〉(1951.6)<sup>1</sup>는 오늘날까지 북에서 크게 선양되고 있는 여성영웅 조옥희를 그린 실화소설이다.

작품은 유엔군 점령시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품의 주인공 조옥희는 결혼 1년만에 남편을 잃고 홀로 어린 자식을 키우며 살았다. 노동당원인 옥희는 적들이 쳐들어오자 어린아이가 딸린 여성의 몸이니 안전하게 후퇴를 하라는 군당 위원장의 권고를 오히려 섭섭하고 노엽게 생각하며 자원하여 빨치산에 들어와 조국을 위해 싸운다.

얼마나 가슴을 두근거리며 로동당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리라고 결심한 날이었던가. (중략) 반드시 남편의 뒷까지 보람 있게 살리라 맹세했던 것이다. 그러기에 그 날 조 옥희는 조국을 위하는 길이라면 백번 죽어도 유한이

<sup>1</sup> 임순득, 〈조옥희〉, 《영웅들의 이야기》,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년. 이하 인용문은 페이지수만 밝힘. 본문에서의 인용문의 격식, 문장부호, 띄어쓰기 등은 모두 원문에 따름.

없겠노라 일기에다 쓰지 않았는가.(P.308)

위의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조옥희가 지향하는 것은 자신이나 자기 한가족의 안일한 삶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보람있는 삶이다. 때문에 그는 빨치산에서 후방책임이나 정찰임무같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이 아니라 인민군들과 동등한 전투원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며 또 그것을 실천한다. 어린 아들과 늙은 어머니 걱정에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투쟁의지는 굳세여 습격조 분대장의 역할까지 맡고 현물세 창고에 갇힌 동지들을 구한다. 미군의 복수가 가렬해지고 빨치산이 발각되자 옥희는 적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인함으로써 동지들의 안전한 보장을 한다. 유엔군에게 잡혀 온갖 고문을 받지만 조국땅을 위하여 피 흘리고 목숨을 바쳐도 좋다고 생각하는 옥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다 장렬하게 희생된다.

황건의 <불타는 섬>(1952)<sup>2</sup>은 1950년 9월 12일 깊은 밤 해군 통신수 김명희가 나어진 두 여성 통신수와 함께 월미도에 있는 리대훈 해안포중대에 배속되어 나가는 것으로 시작되어 유엔군의 인천 상륙을 저지시키기 위한 월미도 방어전투를 김명희의 목격자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방직공으로 일하다가 해군기술학교를 졸업한지 반년만에 전쟁터에 나온 명희는 불바다가 된 월미도의 참상에 마음을 진정하기 어려웠지만 리대훈 해안포중대원들의 눈물겨운 싸움을 보면서 두려움이 가셔지며 영웅적인 중대원들에게 특히 중대장 리대훈의 대원들에 대한 관심과 전투력에 마음이 사로잡힌다.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무전수들은 전부 돌아오라는 사령부의 철수명령이 하달되었으나 그는 죽을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끝까지 남을 것을 신청한다.

“명희는 벌써 오래 전부터 하여 온 생각이면서 지금에야 한 생각처럼 생명을 내어 놓고 싸우는 한 자기도 함께 남아 생명을 바치는 것은 자기의 가장 귀중한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생애에는 이 보다 더 절박하고도 더 중대한 시간이 있지도 않았지만 있을 것같지도 않고 이 시간이야 말로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이 결정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가슴 허비듯 했다. 아직도 걱정은 보고되어야 할 것이고 중대는 사령부와 연락되어야 할 것이고, 또 포중대 동무들의 싸움은 모든 부모 형제들에게 전하여져야 할 것이었다.”(P. 12)

리대훈포중대 대원들과 함께 있는 동안 명희는 어떤 생명이야말로 진정 의미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 때문에 명희에게는 삶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는 자신의 생명 보다도 통신수로서의 의무를 생각하여,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월미도에서의 영예로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명희의 영웅적인 행동은 마지막 결전을 앞둔 리대훈 중대원들의 사기를 크게 북돋아주게 된다. 조국을 위한 희생을 각오했기에 명희는 마지막 희생될 때까지 태연자약하게 월미도의 상황을 사령부에 보고한다. 이처럼 김명희는 생명도 청춘도 사랑도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는 서슴없이 희생하는 영웅적 인간이다.

리정숙의 <보비>(1952)<sup>3</sup>에서는 세 여성형상이 등장하는데 전시 여성들의

<sup>2</sup> 황건, <불타는 섬>, 조선인민군 창건 5주년 기념소설집 《화선》, 국립도서출판사, 1953년, 이하 인용문은 페이지수만 밝힘.

<sup>3</sup> 리정숙, <보비>, 리정숙 단편집 《선희》,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년. 이하 인용문은

세가지 삶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은 유엔군 점령시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인민군 전화교환수 보비의 영웅적인 투쟁을 동료인 전화교환수 경애의 목격자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적 점령하에 있는 크지 않은 이 산읍에서는 매일같이 비인간적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 유격대의 투쟁을 돕기 위해 적점령하에 있는 산읍의 전화국에 잠입한 보비는 적들의 삼엄한 경비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유격대에 탄알을 빼돌리며 교환수로 일하는 유리한 여건을 이용하여 적들의 전화를 끊어엿애기도 하고 기계를 파괴하는 등 적들의 통신망을 파괴하며 중요한 정보를 알아내어 유격대에 제공함으로써 유격대의 작전을 크게 돕는다. 성격이 당돌하고 오돌찬 보비는 “키”를 세우고 필요한 통화를 연결했으며 헌병이 갑자기 쳐들어와도 결코 당황하거나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이 태연자약하다. 사형 집행을 내일로 앞둔 동지들을 구해내는 유격대의 습격을 보장하기 위해 보비는 용감하게 경찰지서의 응원을 요구하는 전화를 연결시키지 않는다. 자신을 걱정하는 경애에게 오히려 “경애 언니, 무서워 말아요. 나 하나의 위험은 아무 것도 아니야요.”(P.41)라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맡은바 임무를 원만히 수행한다. 이처럼 보비 역시 적들과 용감하게 싸우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목숨까지 서슴없이 바칠 각오가 되어있는 영웅적인 여성이다.

소설 <보비>에서는 경애의 시각으로 또 한 여성이 간략하게 그려지고 있는데 그것은 한 유격대원의 안해이다. 경관들이 그와 그의 어린 자식을 생매장하며 남편이 있는 곳을 대라고 위협하지만 유격대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택하는 것이다. 작품에서 이 형상은 적들의 만행을 폭로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한편 후방인민들의 애국심과 불굴의 투지를 보여주는 소재로도 활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생존을 위해 적점령하의 전화국에서 교환수로 일하는 경애는 “지금도 그 녀인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그 앞을 지나는 자기의 가슴을 찌르는 듯하여 그 언덕 비탈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줄곧 달음박질”(P.16)치는 것이다.

주요인물 경애는 착하기는 하나 폭력앞에 두려움이 크고 불의에 맞서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유격대원의 가족을 생매장하는 것을 목격한 경애는 현실에 대응해 나가기 보다는 공포심에 싸인 나날을 보낸다. 후에 지하공작원으로 새로 들어온 교환수 보비의 오돌찬 성격과 용감성에 탄복하고 흠모하면서 자신에 대해 반성을 한다. 때문에 적들이 달아나면서 우편국에 불을 지르려고 할 때는 보비한테서 배웠던 “무서워 말라! 승리를 믿으라!”(P.47)는 말을 되뇌이며 수리공 판석이와 함께 적을 죽이고 일터를 구원한다. 작품은 공포심에 떨며 적들에게 이용되던데로부터 위험을 무릅쓰고 재더미가 될번한 우편국을 구하는 경애의 형상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를 믿고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는 사상을 보여준다.

이처럼 주인공 보비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적들과 용감하고 슬기롭게 적극적으로 싸우는 영웅적인 여성이라면 후방의 유격대원의 안해는 전쟁에 의한 여성들의 수난을 보여주는 동시에 후방인민들의 애국심과 불굴의 투지를 보여주는 여성이며 교환수 경애는 적들에게 이용당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투쟁으로 나아가는 변모하는 여성이다. <보비>에서는 세 여성이 등장하지만 적치하의 현실과 타협하는 여성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우는 여성, 두려워하던데로부터 각성하여 투쟁으로 나아가는 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작품이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며 적들과의 투쟁으로 불려일으키는 교육적 기능에 초점을 두었음을 의미한다.

리종민의 〈케도우에서〉(1951)<sup>4</sup>도 두 여성인물이 등장한다. 주인공 박인순은 노동당원이며 열차 차장이다. 폭격으로 파괴된 철도복구를 위해, 전선 수송을 위해 그는 휴가도 단념하고 생명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나아린 은희를 전시 임무수행에 적극 나서도록 이끌어준다. 그런데 약혼자인 기관사 송남이가 저수지보쪽에 떨어진 폭탄을 해제하다가 마주 쳐다보기 흥할 정도로 얼굴에 화상을 입는다. 직장 사람들은 송남이의 용감한 행동을 칭찬하며 그에게 따뜻한 관심과 힘을 안겨주는데 인순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고민을 하다가 사랑도 대담성과 헌신성이 요구되며 새 도덕에서 살아야 한다는 오빠의 타이름을 듣고 깨끗하고 고상한 송남이에 대해 전보다 더 그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함을 확실히 한다.

작품의 다른 한 여성인물은 박인순의 동료인 열일곱살의 승무원 은희이다. 적들의 폭격에 겁을 먹은 나아린 은희는 사직하고 고향 산골마을로 돌아가려고 생각한다. “그보담두 파괴되구 상하구 죽구 하는 일들이 무섭기만하구 분하진 않아?”(P.143) “ 늘 민청 회의에서 듣지 않았니…원수와 싸워 이기자구들! 이런 속에서 일하는 것두 원수와 싸우는 건데.”(P.144) 힘을 북돋우어주며 따뜻하게 이끌어주는 인순의 깨우침과 동료들의 용감한 행동에 감화되어 은희는 마침내 “땡별과 비바람을 힘껏 마실”(P.161)것을 결심하고 밝은 모습으로 전시 임무수행에 적극 나서게 된다.

이처럼 작품은 전쟁의 시련속에서 철도로동자들이 발휘한 영웅성과 고상한 정신 도덕적 풍모를 보여주고 있다.

변희근의 〈첫눈〉<sup>5</sup>(1952)은 유엔군 점령시기 후방 인민들, 특히 여성들의 수난과 투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품에는 두 여성인물이 등장한다. 주인공 명옥이는 전로공이었던 남편이 인민군대에 가입하여 떠나고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있었다. 밤이면 이루어지는 적들의 “녀자사냥”에 전전긍긍하면서 날을 밝힌 아침에 미군과 치안대원이 들이닥치고 아들이 총에 맞아 죽는다. 아들을 내놓으라고 달려들었다가 유치장에 갇히게 된 명옥은 슬픔과 복수심에 모대기지만 어찌할바를 모른다. 그러나 유치장에서 만난 남편이 다니던 공장 세포위원장이었던 철웅에게서 많은 교육을 받고 또 노동당원들의 영웅적인 투쟁을 목격하면서 아들의 복수뿐이 아닌 더 큰 것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의식의 각성을 가져온다. 유치장에 갇힌 사람들을 이용해 비행장을 닦는 기회를 틈타 도망쳐 나온 명옥이는 빨치산을 도와 일을 한다.

명옥이한테서 최동무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접해들었을 때 슬픔보다 오히려 아들이 떳떳하게 죽었다는데 안도를 하는 최로인과 남편이 끝까지 싸웠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슬픔에 잠기기보다는 복수심을 더욱 다지는 정순이를 보면서 자신의 지난날 생각했던 복수는 얼마나 작은 것이었던가를 더욱 깨닫게 된다.

그럴 때마다 명옥의 가슴 속에는 원수에 대한 새로운 증오와 적개심이 동이를 틀었고 승리에 대한 신심이 봄풀처럼 새파랗게 싹 텴다. (중략) 명옥은

<sup>4</sup> 리종민, 〈케도우에서〉, 《영웅들의 이야기》,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년.

<sup>5</sup> 변희근, 〈첫눈〉, 《첫눈·남강마을의 새로운 노래》, 문예총출판사, 1953년 6월. 이하 인용문은 페이지수만 밝힘.

자기의 복수심이 그들의 그것에 비하여 얼마나 적고 하찮은 것인가를 깨달았고 더 큰 것을 위하여 — 조국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싸워야겠다고 다짐 할 때 그는 그들과 함께 고생을 겪고 있는 자기가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P. 76)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편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던 명옥이는 정보연락, 빼라선포 등 지하조직이 맡겨주는 임무를 완성하는 과정에 점차 성숙되고 용감해지며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입당도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명옥이는 다만 남편에게 충실했던 평범한 여성으로서 개인감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유격대를 후원하다가 점차 조국을 위해 싸우는 투쟁적인 여성으로 성장하는 여성형상이다. 작품은 평범한 여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현실에 대응해 나서게 되는 의식의 성장 과정, 이를테면 명옥이의 임무집행과정의 불안과 긴장한 심리를 섬세하고 생동하게 묘사함으로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첫눈〉의 다른 한 여성인물은 세포 위원장 철웅이의 안해인 정순이다. 전지작장의 노동자인 그는 얼핏 보기에는 그저 양전한 여성으로만 보이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남성들 같이 서둘렀고 과단성이 있었다. 노동당원인 정순이는 적들이 강점한 그 시각부터 남편과 같이 당의 지시로 지하공작원이 되었다. 적들의 무기창고를 폭파하는 위험한 공작에도 여러번 참가했으며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도 넘기었다. 남편이 적들에게 체포되어 구금된 뒤 적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있을 남편을 생각할수록 그의 적개심은 불타오른다. 남편이 조국을 위해서 끝까지 싸웠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는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숨기고 더욱 큰 복수를 다짐한다.

“나는 전쟁에 승리하는 그날부터 지금 마음에 꺼리끼는 일들을 모두 속 시원하게 해 버릴테요. 인재부터는 조국이 내 남편이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 섬기듯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에 섬길테요.”(P.111)

아직은 준엄한 전쟁기간이지만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는 정순이는 앞으로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다짐한다. 노동당원인 정순이에게 있어서 조국은 남편과 같은 존재이며 그의 전부이다.

이처럼 이 작품에 등장하는 두 여성인물도 조국을 위해 전쟁의 승리를 위해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서는 투쟁적 여성들이다.

황건의 〈안해〉(1951.9)<sup>6</sup>의 주인공 탄실은 항상 앞장서가는 당원 남편의 감화를 받아 줄곧 열성 맹원으로 활약했지만 역시 남편과 아들을 섬기는데 전념을 하는 현모양처였다. 그러다 미군이 갑자기 쳐들어오자 남편은 산으로 들어가면서 탄실이라도 후퇴를 하지 말고 남아서 지하당 일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탄실은 불안하기도 하였지만 남편을 따를 것을 결정한다. 남편이 가져다주는 빼라를 붙이는 등 위험한 일들을 해내는 과정에서 점차 대담해지고 훌륭히 완성해낸다.

그는 두려움이 들거나 위험이 느껴질 때마다 남편과 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짐한다. 그런데 한번 임무를 완성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우연히 위험에 처한 남편을 목격한 탄실은 흔들리게 된다.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걱정되는 상황에서 또 관건적인 임무가 맡겨지는데

<sup>6</sup> 황건, 〈안해〉, 《목축기》,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9년. 이하 인용문은 페이지수만 밝힘.

탄실은 끝내 자신이 말아 나선다.

이미 탄실은 남편을 위하여서만, 상기를 위하여서만 있지는 않았다. 그는 벌써 가족의 범위를 넘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녀자였다. (P.169)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훌륭한 남편에 발맞추기 위하여 열성적으로 배웠고 전쟁이 일어나자 남편과 아들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신념으로 버텨오던 탄실은 가족의 범위를 넘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는 여성으로 변모하였다. 이와같이 작가는 평범한 안해, 어머니로부터 가족을 떠나서 더 큰 조국해방을 위하여 싸우며 강해지고 용감해지는 성격특징에 치중점을 두고있다.

때문에 적들이 아들을 소방대 꼭대기에 붙들어두고 탄실을 위협하고 유인해 내려고 할때도 임무를 드팀없이 완성하며 감옥에 갇히워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들도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도 슬퍼하는 기색이 없이 단지 자신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들과 함께 깨끗이 조국앞에 바쳤을뿐”(P.179)이라고 생각한다.

한설야의 장편소설 《대동강》(1.2 부, 1952)<sup>7</sup> 은 유엔군 평양점령 약 3 개월을 배경으로 평양시 청년로동자들이 적들과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 점순이는 18 세의 처녀로서 평양시 문화인쇄공장 노동자이다. 해방전 어린 소녀시절부터 인쇄공장에서 고역에 시달렸고 해방후에는 일하면서 부지런히 공부하여 몰라보게 성장한 노동자이다. 평양을 점령한 미군이 평양일보를 발간하게 되어 남에서 온 간부들은 신문제작을 위해 노동자들을 모으게 된다. 지하공작원 덕준이와 벽보 붙이기, 전선 끊기 등 투쟁에 가담했던 점순은 덕준의 지시로 신문제작부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점순은 전에 이 인쇄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노동자들을 묶어세워 기계부속품을 없애고 조립된 기계를 파손시키고 활자를 빼돌리는 등 방법으로 적들의 신문제작을 지연시킬뿐만 아니라 빨치산 연락 공작원과 협력하여 활자 바꿔치기, 조판 녹여버리기 등 방법으로 신문발간을 파괴한다. 결과 기사내용을 전도시켜 적들의 신문 첫호를 폐물로 만든다. 이러한 투쟁으로 점순이는 상락 등 노동자들과 함께 적들에게 붙잡히나 호송되는 도중에 동료들에 의해 구원된다.

점순이는 어머니가 붙들려가지만 슬픔에 잠기고 소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개심에 불타며 토굴에서 숨어지내는 극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점순이는 슬기롭고 용감하게 투쟁을 계속한다. 동수와 문일에게 과업을 맡겨 적들의 신문제작을 지연시키는 한편 활자와 종이를 훔쳐냄으로써 뼈라를 만들어 산포하며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반격이 시작되었다는 승전소식을 뼈라로 산포하여 평양시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준다. 평양 철수를 앞두고 적들은 대량의 비인간적인 학살을 계획하는데 점순이네는 덕준이 파견한 지하공작자들과 정찰병, 빨치산들과 협력하여 수용소를 습격하여 많은 시민들을 구해내어 산으로 피신시키는 한편 평양시 보위전에 참여한다. 이처럼 점순이는 적치하의 현실에

<sup>7</sup> 한설야, 《대동강》, 《한설야 선집 · 10》,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1 년판. 이하 이 글에서의 인용문은 페이지수만 밝힘. 《대동강》은 3부작으로 되어있으나 제3부는 전후에 나온 것이므로 이 글의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서는 영웅적인 여성이다. 점순에게 있어서 조국해방을 위해 싸우는 일은 무엇보다도 성스럽고 영예로운 일이다.

위의 전시소설들에 나타난 여성인물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치열한 전쟁마당에 나간 여성이든 아니면 후방에 남아있는 여성이든 그 주요인물형상의 부각면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전쟁을 제재로 한 작품에서 나타나는 주요 여성인물형상은 대체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미군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뚜렷이 나타내며 불굴의 투지와 필승의 신심을 보여준다. 전쟁이라는 비상한 시기에 여성들이 당한 수난의 삶 그 자체를 조명하기보다는 여주인공이 어떻게 용감하게 싸웠는가 하는데 초점이 놓여있다. 작품에서의 미군의 악행은 미군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여주인공이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북의 전시문학의 방향이 ‘강력한 무기’로서의 사회적 기능에 결집되었음을 말해준다.

북의 전시소설들의 여성주요인물형상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유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시 문예정책에 관한 김일성의 교시<sup>8</sup>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배경하에서 김일성의 교시가 있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김하명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이렇듯 급속히 발전하는 현실에 앞서 나가면서 우리 인민이 나갈 방향을 가르치지 못 하였으며, 새로운 전투적 영웅성을 높은 사상 예술성을 가지고 뚜렷하게 묘사하지 못 하였다. 특히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인민들의 대중적 영웅주의와 애국적 헌신성을 그 높이와 깊이에서 높은 예술성을 가지고 묘사한 작품이 아직 많지 못 하였다. 우리 문학은 원수들의 야수적 만행의 본질을 충분히 적발 폭로하는 면에서도 아직 미약하였다.

이러한 정형에서 1951년 6월 30일 김일성 원수는 전체 작가 예술가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였다.<sup>9</sup>

보다시피 김일성의 교시는 당시 문학창작실천이 전쟁의 승리를 위한 현실적 요구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문학예술분야의 상황을 념두에 둔 것이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6월 30일 김일성은 중견 작가 예술가들과의 담화에서 그간의 전시문학예술이 거둔 성과와 존재하는 문제들을 분석하는 동시에 전시 작가, 예술가들에게 부여된 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우리 작가 예술가들은 인간 정신의 기사로서 자기들의 작품에 우리 인민이 가지고 있는 숭고한 애국심과 견결한 투지와 종국적인 승리를 위한 철석같은 결의와 신심을 가장 뚜렷하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작품이 싸우는 우리 인민들의 수중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예리한 무기가 되게 하며 전체

<sup>8</sup> 전시 문예정책에 관한 김일성의 교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950년 6월 26일 전체 조선 인민들에게 호소한 방송연설, 1950년 12월 24일 작가, 예술인, 학자들과의 접견석상에서 행한 연설, 1951년 6월 30일에 중견 작가들과의 접견석상에서 행한 연설, 동년 12월 12일 베를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였던 문화예술인들과의 접견석상에서 행한 교시 등을 들 수 있다.

<sup>9</sup> 김하명, <조선 로동당의 문예 정책의 빛나는 승리>, 《전진하는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년, 제 35~36 페이지.

인민을 최후의 승리로 고무 추동시켜야 할 것입니다.<sup>10</sup>

김일성은 전시 문학예술이 “강력하고도 예리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창작실천과 관련시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숭고한 애국심, 견결한 투지, 중국적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 인민군대의 영웅성과 완강성 그리고 대중적 영웅주의, 후방인민들의 영웅성과 완강성, 민족에 대한 높은 긍지, 적에 대한 불붙는 증오심, 정의의 전쟁이라는 전쟁의식 등을 뚜렷이 표현해야 할 것과 창작실천에서 자연주의적 경향을 없애며 국제주의정신을 발양해야 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숭고한 애국심, 대중적 영웅주의, 적에 대한 증오심, 불굴의 투지, 필승의 신념이 이후 모든 전쟁제재작품의 주요여성인물형상들에서 뚜렷하게 구현되는 것은 이 시기 사회 역사적 상황이 소재로 활용된 것과 작가들의 전쟁체험과도 관련되겠지만 위의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더 중요한 것은 전시문학의 창작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김일성의 교시가 당의 문예정책으로 기능하여 이 시기 창작실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전쟁이라는 비상한 정치군사적 동원 체제 안에서 전시 문학은 문학의 성취도보다도 전쟁의 승리를 위해 동원되는 ‘무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 3.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 낙관주의

북의 인민들에게 있어서 6.25 전쟁은 조국의 자주독립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정의의 전쟁으로 인식된다.<sup>11</sup> 때문에 전쟁의 본질, 또는 전쟁의 비극에 대한 고민과 갈등 같은 것은 그려질 수 없다. 위에서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작가들에게 부여된 과업은 갖은 수단을 다하여 인민들에게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어 전국 인민들을 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총 쫓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전시 소설들에는 혁명적 낙관주의가 보편적으로 구현되게 되었다.

〈불타는 섬〉에서 김명희는 적들과의 절박한 대치, 무수한 죽음의 희생을 강요하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란 전혀 모르며 용감하고 낙관적이다. 죽음을 각오한 월미도전장에서 비록 짧디짧은 순간이나마 김명희와 리대훈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불태우며 사라져가는 청춘을 빛내인다. 무엇보다도 귀중한 조국을 위한 것이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기에 죽음이 곧 닥쳐오는 전장이지만 그는 두렵거나 슬픈 생각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영웅적인 리대훈 그리고 그 중대원들과 알게 된 시일이 짧은 것을 애석해 한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개인의 생명이나 사랑에 대한 미련이나 애석함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고 태연자약하게 통신을 보내어 살아있는 모든 전우들에게 굽힐줄 모르는 싸움과 승리가 있을 것을 비는 것이다. “이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하겠소.” 이것은 김명희의 마지막 무전을 다 듣고난 사령관의 말이다. 한개 중대가 전멸된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비극적인 의식이 아니라 그들의 영웅적인 희생으로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떨어져나선다는데서, 그리고 그들의 생명은 사라졌으나 그들의

<sup>10</sup> 《김일성선집》 제3권, 278 페이지, 《전진하는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년, 제36페이지에서 재인용.

<sup>11</sup> 김선려·리근실·정명옥, 《조선문학사·11》, 사회과학출판사, 1994년, 제13페이지.



숭고한 애국심과 영웅성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기에 오히려 그들의 짧은 생애는 더욱 빛나며 값있는 보람된 삶이라는 것으로 혁명적 낙관주의를 보여준다.

〈첫눈〉에서도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편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던 명옥은 지하조직이 맡겨주는 임무를 완성하는 과정에 더욱 보람을 느끼고 입당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치안대장이 장가드는 날 밤을 기하여 치안대를 습격 방화하고 적들의 혼란을 이용하여 창고에 갇힌 당원가족들을 해방시키며 유격대의 습격을 성공적으로 원조하고 계획대로 빨치산투쟁을 위해 산으로 올라가는 도중 첫눈을 맞으며 북쪽에서 인민군대가 내려온다는 소식으로, 승리의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조옥희〉에서도 조국의 광명한 미래와 연결된 자기 투쟁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확신으로 하여 조옥희는 조국땅을 위하여 피 흘리고 목숨을 바쳐도 좋다고 생각하며 감옥에서의 온갖 고문을 견디어내고 장렬하게 희생된다. 그는 사형장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며 눈을 수건으로 가리워 달라고 비굴하게 애걸하는 청년에게 “우리의 죽음은 헛되지 않다. 노동당원의 영예를 고수하라!”고 분노하여 부르짖으며 총살 당할 때에도 추호의 두려움이 없이 미제국주의의 멸망을 저주하고 노동당원과 인민군대에 의한 전쟁의 승리를 선언한다.

〈계도우에서〉의 청년기관사 송남이는 저수지보둑에 떨어진 폭탄을 해제하다가 마주 쳐다보기 흥할 정도로 얼굴에 화상을 입어 인순이와의 사랑이 조금 흔들리기는 하지만 결국은 인순의 전보다 더한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뿐만 아니라 정형수술을 받도록 당조직의 배려가 돌려져 그들의 밝은 앞날이 예시된다.

〈보비〉에서도 보비의 영웅적인 원조에 의해 유격대원들은 습격전에서 사형 집행을 내일로 앞둔 동지들을 성공적으로 구해낸다. 헌병들이 보비의 소행임을 발견하고 쳐들어오지만 그는 단신으로 용맹하고 슬기롭게 싸워 헌병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간다. 그의 영향하에 두려움에 떨던 경애도 용감하게 적과 싸워이긴다. 인민군의 반격이 시작된 승리의 소식과 함께 유엔군들이 물러가고 군복을 입고 나타난 보비도 남으로 떠난다.

〈안해〉에서도 조국을 위해 갖은 시련을 겪으며 영웅하게 싸운 탄실은 빨치산이 인민군대, 지원군과 함께 승리함으로써 감옥에서 구원되며 아들과도 상봉한다.

장편소설 《대동강》 역시 유엔군의 만행과 평양점령에 적극적으로 대결하여 싸워이기는 여성주인공을 등장시키고 있다. 치밀하고 생동한 묘사보다는 적들과 용감하고 슬기롭게 싸워이기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여주는데 치중하고 있는바 작가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전시 평양 노동자들이 보여준 고귀한 애국심과 불굴의 투지와 필승의 신념이다. 《대동강》은 현실을 반영함에 있어서나 또는 전쟁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가치판단에 있어서나 뚜렷한 경향성을 보여준다. 시민들의 전시 피폐한 일상생활에 대한 구체적이고 섬세한 묘사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작품의 서사 전개상의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점순이를 비롯한 평양시 청년노동자들의 적들과의 싸움인데 그 묘사는 시종일관 낙관주의로 일관되고 있다.

덕춘의 지시에 따라 점순이는 전화선을 끊는데 국군 공병들은 이를 고물상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한 장난이라고 판단한다. 지하공작원인 박시현이 적들에게

체포되지만 고랑을 차고 적들에게 고문을 받다가 헌병과 엠피를 밀어 젓히고 이층에서 뛰어내려 적들의 손아귀에서 감쪽같이 빠져나간다. 점순이 등이 신문제작 파괴로 적들에게 붙들리지만 동료인 동수와 문일이에 의해 호송도중에 쉽게 구원된다. 점순이와 상락이 등은 문일이네 토굴에 숨어지내나 문일이의 어머니가 미군을 상대로 한 식당에서 일함으로 하여 그들의 식량은 어렵지 않게 해결되며 동수와 문일이가 종이와 활자를 훔쳐내옴으로써 그들의 빼라 만들기와 산포 작업은 계속된다. 상락이가 그 과정에 적들에게 붙들리지만 용감하게 싸우다가 적들속에 잠입해 있는 내무원 “딱총”에 의해 감쪽같이 구원되며 정찰병, 빨찌산 등의 협력하에 점순이네는 수용소도 별 희생 없이 습격에 성공한다. 작품에서 미군의 만행은 많이 서술되고 있지만 투쟁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한명의 희생도 없으며 그들의 투쟁은 언제나 승리로 끝난다. 처절한 전쟁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도 낭만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작품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조선 로동당에 의하여 지도된 조선 문학의 총 방향을 작가 동맹 위원장 한설야의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보고에서 그는 조선의 문학가들은 자기의 예술적 기능과 수단을 다하여 인민들의 전투 정신을 고무 앙양시킴으로써 그들을 조국 해방 전쟁의 승리를 위한 영예로운 싸움에 총 쫓기시켜야 하며 전쟁의 종국적 승리에 대한 그들의 신심을 더욱 북돋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12</sup>

앞에서 이미 전시 북의 작가, 예술인들에게 준 김일성의 교시를 살펴보았다. 김일성은 작가들이 작품에서 인민들의 숭고한 애국심과 견결한 투지와 전쟁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뚜렷이 표현함으로써 인민들을 전쟁의 승리로 힘있게 고무할 것을 작가들에게 요구하였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여주는 한설야의 보고내용은 김일성의 교시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특히 문학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대동강》에서 나타나는 점순이를 비롯한 청년노동자들의 열렬한 애국심, 굴함없는 투쟁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 미군의 만행에 대한 폭로와 적개심 고취는 전시 문예정책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다. 구카프계 작가이며 해방후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최고 책임자로 활동한 한설야에게 있어서 당정책의 구현은 자각적이며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국적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뚜렷이 표현하는데 있어서, 인민들을 승리로 힘있게 고무함에 있어서 혁명적 낙관주의는 필수적인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

(ㄱ) 점순이는 덕준의 지시로 그 뒤 벽보를 붙이고 빼라를 뿌리는 일도 하였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 아침 일찌감치 석탄 달구지를 끌고 나가서 제가 붙인 벽보에 모여 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점순은 한결 더 기운이 났다. 싸우다가 죽어도 좋다는 젊은이다운 흥분이 때로 그를 사로잡곤 하였다.(P.8)

(ㄴ) 바로 그 앞 백화점 자리 — 지금은 미군 엠피 본부로 되어 있는 헌사총 집 이층에서 와지끈 소리가 나며 별안간 무엇이 번개같이 날아 내렸다.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길바닥에 떨어져 잠시 주춤거리다가 이내 쏠살같이

<sup>12</sup> 안함광, 〈해방후 조선 문학의 발전과 조선 로동당의 향도적 역할〉, 《해방후 10 년간의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년, 제 34 페이지.

어디로 내뺄고 말았다. 어느 골목으로 어떻게 새여 빠졌는지 알 수 없었다.  
(……)

그 청년은 확실히 고량을 차고 있었다. 원수들에게 체포되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아니나다를가 조금 뒤에 금방 청년이 뛰어 내린 이층 창문으로 검은 안경을 쓴 옴피 장교놈이 상반신을 쑥 내밀고 무작정하고 권총을 갈겨 댔다. 그러자 바로 그의 곁에서 리 승만의 헌병 장교놈 하나가 또 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P.9)

혁명적 낙관주의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동강》에서는 적들의 형상이 상당히 희화화되고 있으며 적들에 대한 묘사에서는 작가의 주관적 감정색채가 뚜렷이 나타나는바 미군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의 감정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역시 작가가 문학의 교육적 기능을 추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상한 정치 군사 동원 체제하에서 혁명적 낙관주의를 구현하는 문제는 북에서는 이미 단순한 창작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입장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로 된다. 이러한 사실은 혁명적 낙관주의와 대치되는 작품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데서도 확인된다.

림 화는 반동적 시 『너 어느 곳에 있느냐』, 『바람이여 전하라』 등에서 연속 외롭고 암담하고 절망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싸움에 지쳐 한숨짓고 눈물 흘리는 패배자의 심정을 뇌까렸다.

리 태준은 『천사의 분노』에서 미 제국주의자의 조선 인민에 대한 멸시감을 합리화해 나섰으며 『백배 천배』에서는 인민 군대의 애국적 헌신성을 모독하며 영전 사상을 전파하려고 시도하였다.

김 남천은 단편 『꿀』에서 인민 군대가 『국방군』에게 치명상을 입고 슬픔과 외로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묘사함으로써 역시 악랄한 음모를 실현해 보려고 책동하였다.<sup>13</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외롭고 암담하고 절망적인 분위기, 패배적인 정서, 영전사상, 슬픔과 외로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장면에 대한 묘사는 “견결한 투지와 종국적인 승리를 위한 철석같은 결의와 신심을 가장 뚜렷하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전체 인민을 최후의 승리로 고무 추동시켜야 할” 강력하고도 예리한 무기로서의 문학이라는 문예정책의 요구에서 보면 그것은 이색적인 문학으로 된다. 따라서 정치논리와 용해되지 못한 문학은 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여 설 자리를 잃게 된다.

#### 4. 맺음말

본 연구는 전시 북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형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여성들의 전쟁체험을 어떻게 소설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전시 북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형상이 보여주는 특징이 당시 조선로동당의 문예정책과는 어떤 관련을 가지는 것인가를 주목했다.

<sup>13</sup> 김하명, 〈조선 로동당의 문예 정책의 빛나는 승리〉, 《전진하는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년, 제 43 페이지.

분석 결과 실재한 영웅적 인물을 원형으로 한 형상이든, 그것이 치열한 전쟁마당에 나간 여성이든 아니면 후방에 남아있는 여성이든 그 주요인물형상의 부각면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전시 소설에 나타나는 주요 여성인물형상은 대체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미군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뚜렷이 나타내며 불굴의 투지와 필승의 신심을 보여준다. 전쟁이라는 비상한 시기에 여성들이 당한 수난의 삶 그 자체를 조명하기보다는 여주인공이 어떻게 용감하게 싸웠는가 하는데 초점이 놓여있다. 여성들의 피폐한 일상적인 삶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창작방법상에서 혁명적 낙관주의가 보편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북의 여성인물형상화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공통성은 북의 전시문학의 방향이 ‘강력한 무기’로서의 기능에 결집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전쟁이라는 비상시기에 정치논리와 문학의 논리가 용해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정치와 문학의 결합이 전시문학에서 보편화될 수 있는 것은 당시 작가들의 전쟁체험이나 작가의 주관적 의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전시문학의 창작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김일성의 교시가 당의 문예정책으로 기능하여 이 시기 창작실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전쟁이라는 비상한 정치군사적 동원 체제 안에서 전시 문학은 문학의 성취도보다도 전쟁의 승리를 위해 동원되는 ‘무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 참고문헌

- 《해방후 10년간의 조선 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년.
- 《해방후 우리 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년.
- 조선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사·하》, 과학원출판사, 1959년.
- 《전진하는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년.
- 김일성종합대학창립 15주년기념 《논문집·사회과학편》, 김일성종합대학, 1962년.
- 박종원·류만 《조선문학개관·2》, 사회과학출판사, 1986년.
-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1990년 제 6호, 1990년 6월.
- 《조선어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3년 제 3호, 1993년 8월.
- 김선려·리근실·정명옥, 《조선문학사·11》, 사회과학출판사, 1994년.
- 은종섭, 《조선근대현대문학사·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6년.